

녹 취 록

열람용

 **오케이** 속기사무소

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82번안길 166-22 (다산동 엘센트로타워 3층, 318호)

TEL : 010-3419-5522 E-mail : oksokgi1@naver.com

녹 취 록

녹 음 일 시	2022년 9월 7일 17:27
녹 음 장 소	박준한의 휴대폰 통화내용
대 화 자	최병선, 조기철, 박준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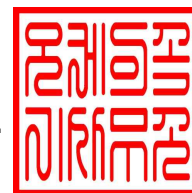
본 녹취록은 의뢰한 녹음파일과 일치함을 증명함

2024년 7월 12일

국가공인 속기사 황 정 은



 오 케 이 속 기 사 무 소



- 녹음일시, 장소, 대화자, 녹음자의 설정은 의뢰인의 진술에 의거함.
- 녹음 청취의 미비 등으로 인한 명사나 고유명사의 표기에 오기가 있을 수도 있음.
-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불필요한 어구 첨삭이나 사투리, 어순 정리는 속기사의 재량에 의함.
- () 안의 내용은 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녹취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수록된 내용임.
- 청취불능에 대한 부분은 ‘...’ 으로 표시함.
- 본 녹취록은 속기사의 허락 없이 수정할 수 없으며, 원본이 아닌 사본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.

박준한 : 네, 형님!

조기철 : 응, 준한아!

박준한 : 네, 네.

조기철 : 그, 부원장님!

박준한 : 네.

조기철 : 부원장님이 지금 저쪽 지앤케이 대표이사잖아?

박준한 : 네, 네.

조기철 : 우리 그 청담, 청담에 그 전담 연구요원이잖아?

박준한 : 네, 네.

조기철 : 그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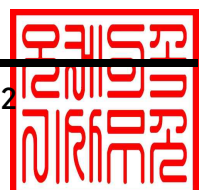
박준한 : 예.

조기철 : 이거 양쪽에서 겸직이 되면 안 되거든.

박준한 : 겸직이 되면 안 된다고요?

조기철 : 응, 그러니까 연구전담요원이잖아?

박준한 : 네, 네.



조기철 : 그러니까 연구전담요원이기 때문에, 그, 청담에서, 청담에서,
그러니까 연구전담요원이라는 거는 청담에서 그 연구, 이것만
한다라는 거잖아?

박준한 : 네, 네.

조기철 : 그러니까 지앤케이의 대표이사가 되면 안 되거든.

박준한 :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, 형님? 빼야 될까요?

조기철 : 어, 빼야지. 빼고, 그, 저기, 지앤케이 대표이사를 누구로 바꿔
야 될지는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. 근데 주주는
상관이 없거든.

박준한 : 예.

조기철 : 주주는 상관이 없는데, 대표이사를 하고 있으면 안 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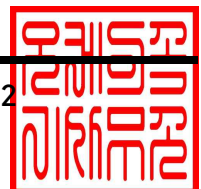
박준한 : 아, 그래요?

조기철 : 응, 응. 겸직이잖아, 겸직!

박준한 : 그럼 대표이사를 우리 애들로 넣으면 이상할까요?

조기철 : 그거는 법적으로, 그러니까 상법! 상법상 그게 뭐 걸림돌이 없
다면은 그거는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.

박준한 : 그러면은 일단은,



조기철 : 다만 지금 지앤케이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잖아?

박준한 : 네, 네.

조기철 : ‘그 매출을 그럼 누가 했냐?’ 그 얘기가 나오면 그 지앤케이에서 뭐. 애가 뭐 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.

박준한 : 예, 예.

조기철 : 그러니까 그거는 같이, 대표이사가 누가 돼야 될지랑 같이 맞물려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?

박준한 : 아아! 알겠습니다. 한번 와이프랑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, 형님! 그러면.

조기철 : 응. 상황은 일단 이해는 됐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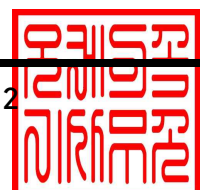
박준한 : 예. 그러니까는 전담요원을 할 거면 이쪽으로 빠지든가, 아니면 전담요원을 빼버리라는 말씀이지 않아요? 그죠?

조기철 : 그렇지.

박준한 : 근데 이제 세율이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?

조기철 : 세율이 뭐지?

박준한 : 세금 내는 요율이라고 해야 되나, 그게 좀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? 저희가?



조기철 : 아, 그러니까 니가?

박준한 : 예, 예.

조기철 : 아, 당연하지!

박준한 : 예.

조기철 : 그러니까, 그러니까 그 부원장님 자리에,

박준한 : 예, 예.

조기철 : 응, 부원장님 자리에 누군가가 리플레이스가 돼야 되는 거지.

박준한 : 예, 예.

조기철 : 세금을 그대로 유지를, 유지가 되는 거지. 만약에 아예 익스펜스 자체가 누락이 돼, 빠져버리면 세금이 왕창 나오겠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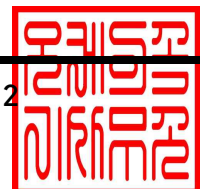
박준한 : 알겠습니다. 최대한 빨리 해서 바꿔볼게요. 그 부분은요.

조기철 : 어, 어. 그게 좀 급할 거 같애.

박준한 : 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저기, 지금 병선이 형이랑 같이 있는데 형을 좀 바꿔 달라고 하시거든요.

조기철 : 응, 응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

최병선 : 어, 어.



조기철 : 응, 내가 문자 보낸 거 혹시 봤니?

최병선 : 그래, 너한테 답장하고 있었는데.

조기철 : 아아! 카톡, 카톡, 카톡!

최병선 : 응, 카톡! 이걸, 이 엑셀 자료가,

조기철 : 그거를 이제 달라라는 거거든. 거래처 원장!

최병선 : 응.

조기철 : 일단은 그거를 줘야 되는데.

최병선 : 이게 엑셀 자료가 진짜인 거잖아?

조기철 : 응, 그게 진짜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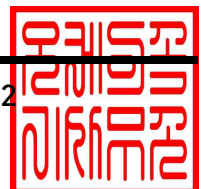
최병선 : 응, 진짜네.

조기철 : 응, 응.

최병선 : 근데 이게 왜 나한테 뭐 이렇게 많지? 10몇억이 이게. 재고가 나한테 다 잡혀 있는 걸로 돼 있는 건가? 뭐지?

조기철 : 그러니까 재고가 아니고, 우리가 이제 손실 났던 거!

최병선 : 응, 응. 그렇지.



조기철 : 응. 손실이 난 거를 손실이 안 나게 해야 되잖아?

최병선 : 응. 그렇지.

조기철 : 손실이 안 나게, 응, 손실이 안 나게 하려면 그거를, 돈은 나갔는데, 돈은 나갔는데, 그 돈 나간 게 다 비용이었던 거지.

최병선 : 응, 응.

조기철 : 응, 근데 돈 나갔는데 그게 이제 비용이 아닌 것처럼 해야 되니까.

최병선 : 응.

조기철 : 그러니까는, '돈 나간 게 자산 사러 나갔다.' 쉽게 이야기를 하면, '자산 산다고 돈이 나갔다.' 그렇게 이제 회계 처리를 해놓은 거지.

최병선 : 그렇지. 응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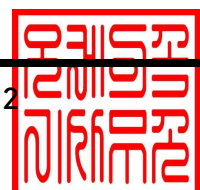
조기철 : 응. 여기까지 따라왔고.

최병선 : 근데 재고가 이만큼 있어야 하는 거지?

조기철 : 재고는 또 다른 문제고.

최병선 : 응, 응.

조기철 : 응. 재고는 이제 우리가 매출, 1년 매출! 1년 매출 나누기 12



하면은 이제 한 달 매출이잖아?

최병선 : 응.

조기철 : 그래서 우리가 재고를 한 석 달치, 그 정도만 재고로 지금 남겨뒀거든.

최병선 : 응.

조기철 : 그 넘어가는 금액! 손실이 이제 과거부터 계속 누적이 돼 왔잖아?

최병선 : 응, 응.

조기철 : 그러니까는, 예를 들면 전체 손실이 이제 100원인데 재고로 갈 수 있는 한계가 뭐 50원인 거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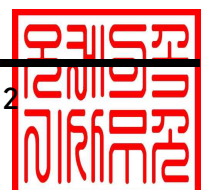
최병선 : 응.

조기철 : 응. 그게 너무 재고가 많으면은 다들 이상하게 쳐다보니까.

최병선 : 응, 응.

조기철 : 그래서 이제 전체 손실이 100원이었는데 재고로 보낼 수 있는 거는 50원밖에 없고.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가야 되냐. 그걸 이제 지금 이 자리에다 집어넣은 거지.

최병선 : 응.



조기철 : 근데 그것도 남들이 보기에는, ‘아아! 뭐 매출 160억이니까, 한 달 매출 뭐 10~20억 되고. 그러니까는 뭐 외상대, 한 이 정도는 리즈너블하다.’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금액을 이제 집어넣어 놓은 거지. 이 자리에.

최병선 : 아아!

조기철 : 그래서 이제 그 거래처명을 니 이름으로 해놓은 거지, 지금.

최병선 : 응.

조기철 :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거는 그동안 가지급금! 가지급금이 이제 재무제표에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가지급금을 외상매출금으로 바꾼 거 하나! 그다음에 손실 난 거 하나! 이렇게 두 가지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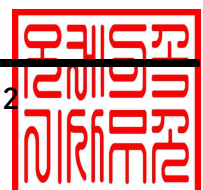
최병선 : 응. 근데 이걸 이대로 내면 어떻게 돼? 내 이름, 최병선에서 이렇게 내면 어떻게 되는 건데?

조기철 : 어떻게, 어떻게 될까? 물어보겠지. ‘이거 뭐예요?’ 이렇게?

최병선 : 어, 어.

조기철 : 어. 그러니까 ‘뭐예요?’라고 하는 순간, ‘사실은요, 이거 이제 우리가 적자 났는데, 적자 났는데, 이게 이제 뭐, 사실은 뭐, 조사관님 잘 아시다시피 금융거래, 뭐 이런 은행과의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’,

최병선 : 그럼 그 자체도 다 위법, 불법으로 취급되는 거 아닌가? 그렇게 보나?



조기철 : 아, 근데 이제 그 부분은, 사실은 이제 왜, 회계 처리상 실무적으로. 뭐 너만 그러겠어? 그거는 이제 많은 회사들이 실제로는 손실인데, 적자인데, 이익으로 뭐 바뀌야 되니까. 은행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. 그런 부분이니까는, 그 정도는 아마 조사 관도 이해는 할 것 같고.

최병선 : 그래?

조기철 : 그럼!

최병선 : 이해를 한다고?

조기철 : 응. 그러니까, '아, 뭐, 그,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셨네요.'라고.

최병선 : 아아! 그래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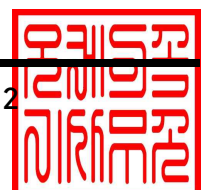
조기철 : 응, 응.

최병선 : 나 그건 모르겠어.

조기철 : 아, 그러니까 그걸, 그거를 잘했다고, 맞다고, 응원할 건 아니고, 왜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제 이해인 거지.

최병선 : 응, 응.

조기철 : 응. 그러니까 이해는 할 것 같고. 다만 이제 그중에서 가지급금!



최병선 : 응.

조기철 : 가지급금이 이제 결국에는 계속 이제 뭐, 인정이자!

최병선 : 응.

조기철 : 가지급금 그 이자 있잖아? 4.6%!

최병선 : 응, 응.

조기철 : 이제 그 문제는 나오겠지.

최병선 : 그건 매년 넣었는데? 넣었다가 빼긴 했지만.

조기철 : 이제 그거는, 가지급금이 사실은 이제, 몇억인데, 몇억! 매년,

최병선 : 내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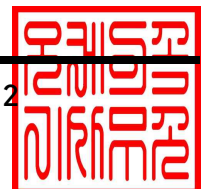
조기철 : 어?

최병선 :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?

조기철 : 1억은 아닌 거 같고. 우리 지금 여기 보면, 그 매년, 매년 니가 넣었다 뺐다 했던 게 그게 한, 한 5백만원 뭐 전후였던 것 같거든?

최병선 : 응, 응. 그러니까 1억 얼마지.

조기철 : 그러니까 그거는 재무제표에서, 재무제표에서 실제로 왔다 갔



다 했던 게 아니고, 이 숫자 만지기 위해서, 숫자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표시했던 그 금액이야.

최병선 : 응. 오케이. 그래서? 그다음에 이 에브리데이로 넣으면?

조기철 : 그래서 대안이 이제 1안! 그대로 냅둔다.

최병선 : 응.

조기철 : 냅뒀을 때는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스토리가 전개가 될 수 있다.

최병선 : 응, 응.

조기철 : 2안! 이제 에브리데이로 간다. 그랬을 때 이제 전개될 수 있는 스토리가, 이제 그 조사관이 우리 비즈니스 구조를 이해를 뭐 하게 되면, '왜 이렇게 그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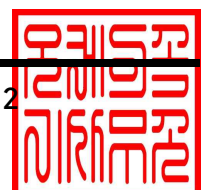
최병선 : 에브리데이랑 외상거래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?

조기철 : 어, '외상이 왜 이렇게', 어, 어. 그렇지. '왜 이렇게 많아요?' 이렇게 스토리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지.

최병선 : 응.

조기철 : 그러면, 뭐 물어보면은, 안 물어보면 다행인데 물어보면은, '사실은요.' 그러면서 이제 쪽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.

최병선 : 뭐라고 얘기해?



조기철 : 응?

최병선 : 얘기할 게 없잖아? (웃음)

조기철 : 아니, 뭐 있는 그대로,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지! 그동안,

최병선 :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얘기해?

조기철 : 그렇게 되는 거지. 응.

최병선 : 야! 이거 판단은 니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? 내가, (웃음)
1번? 자수한다? 자수했을 때, ‘아, 그럴 수 있어요.’ 근데 그거
에 따라서 그러면 뭐 패널티금이, 이게 세무조사에 그런 게 있
냐 이거지? 이거에 따라서, ‘그럼 패널티네?’

조기철 : 아, 없어, 없어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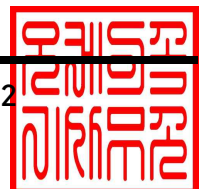
최병선 : ‘어? 신보 돈도 이렇게 해서 받은 거예요?’ 뭐 이렇게 될 수
있잖아?

조기철 : 아, 뭐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, 그렇다고 그분들이 신보에
전화해서, ‘이 사람들 뭐 이렇게 했어요.’ 그러지는 않지.

최병선 : 아, 그래?

조기철 : 그럼!

최병선 : 으음.



조기철 : 내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,

최병선 : 응. 아니, 그러니까 난 그,

조기철 : 응, 맞는데, 일단은 회사에 물어볼 거라고.

최병선 : 세무서의 대응이 나는, 나는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그러는 거지. 충분히 니 말대로, 니 말만 들으면 1번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? 익스큐즈가, ‘아, 그래요?’ 뭐. 오히려 2번이면 거짓말하다가 걸리는 꼴이고. 그렇지 않나?

조기철 : 그러니까 1번으로 가든 2번으로 가든 1차적으로는, 이게 그 텍스 이슈가 아니라, 1차적으로는 퀘스천이잖아? 조사관 입장에서.

최병선 : 응, 응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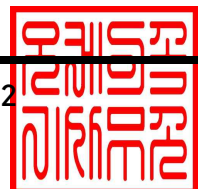
조기철 : ‘이게 뭐예요?’ 그거에 대한 답변은 결국에는 회사에서 할 거고.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.

최병선 : 응, 응.

조기철 : 그러니까 세무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넘겨야 되는 거고. 사실관계 자체를 우리한테 넘길 수는 없는 거니까.

최병선 : 응, 응.

조기철 :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1차적으로는 뭐 니가 하든 이 과장이 하든 할 거잖아?



최병선 : 응, 응.

조기철 :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선은,
내가 마음대로 1번으로 했다가 니가 당황할 수도 있고, 2번으
로 했다가 니가 당황할 수도 있고.

최병선 : 아니, 그렇지. 근데 그걸 결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.

조기철 : 응, 응.

최병선 : 2번이면 애네가 바로, 그다음 질문이 이어서 바로 나오지 않을
까?

조기철 : 그렇지. 이제,

최병선 : ‘왜, 수수료만 받는 구조인데’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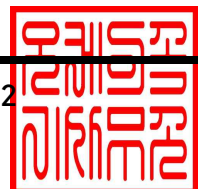
조기철 : 그러니까. 응, 응.

최병선 : ‘에브리데이에 무슨 외상이’,
이게 에브리데이 말고 딴 데 돌릴 수는 없나?

조기철 : 이제 딴 데 돌리면, 뭐 예를 들면, 뭐, 그 보담이라든가, 실제
로 우리 거래하고 있는 데들!

최병선 : 응, 응.

조기철 : 그런 데들로 가야 되는 거지.



최병선 : 옛날에 신보 할 때 그렇게 했었잖아? 돌렸잖아? 보담이라는 데로.

조기철 : 어. 그렇게 돌렸다가, 돌렸더니 이제 그분이 통장 갖고 오라고 그랬던 거지.

최병선 : 누가?

조기철 : 그, 신보에서.

최병선 : 응, 응.

조기철 : 응. 그래가지고 니가,

최병선 : 만들었지.

조기철 : 응, 응. 막 그랬었잖아?

최병선 : 으음. 그러면 통장 갖고 오라 그런다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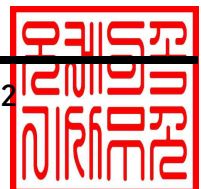
조기철 : 아니, 신보 때는 그랬었다고.

최병선 : 지금 애네도 그러겠지, 뭐. 어쨌든 신보보단 빠질 거 아니야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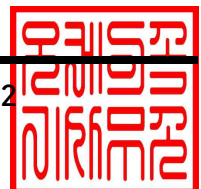
조기철 : 신보는 한 달씩은 안 보잖아?

최병선 : 응?

조기철 : 한 달씩은 안 봤잖아?



- 최병선 : 응, 그렇지. 아유, 그렇지. (웃음)
1번 중에. 1번에 근데 그 정도, ‘아, 그래요?’ 하고, 그게 텍스에 직접적 이슈가 없다? 그걸 가지고 어떤 뭐 과태료라든지, 뭐 세금 추징이라든지, 그런 이슈는 없지? 없는 거야?
- 조기철 : 없지!
- 최병선 : 응.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데?
- 조기철 : 그래. 맞아. 응.
- 최병선 : 응.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?
- 조기철 : 아니, 그게 사실이잖아, 우리가?
- 최병선 : 응, 응.
- 조기철 : 실제로는 마이너스였던 회사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플러스로 돌렸으니까 그만큼 세금을 냈던 거였지.
- 최병선 : 어, 어. 그렇지.
- 조기철 : 응. 근데 물론 뭐 그거에 대해서 돌려주지는 않지만.
- 최병선 : (웃음) 응. 아, 골때린다, 이거, 아유! 에브리데이! 에브리데이면 이건 뭐, 아유! 그게 변명의 여지가 없고. 1번으로 솔직하게 하면 그다음 질문은 없을 거 아니야? 근데 이제,
- 조기철 : 아니, 물어보겠지.



최병선 : 응.

조기철 : 아니, 거래처가 최병선이고, 금액이 뭐 10억씩이나 되는데, ‘이거 뭐예요?’ 이렇게 물어보겠지.

최병선 : 그래. 그러면 이게 뭐 내가 빼간 거, 개념으로 보나? 그럼 개인 통장, 이렇게 보는 건가?

조기철 : 아니, 그거는,

최병선 : 그건 아닌가?

조기철 : 회계 처리했던 게 있잖아! 우리한테!

최병선 : 응, 응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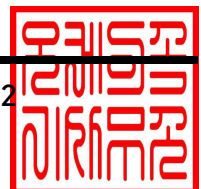
조기철 : 그러니까 이제 12월 31일날, 이제 비용, 맨날 우리가 뭐 얼마로 이익을 픽스시킬지에 대해서 논의했었고.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비용들을 다 죽이고, 비용 죽인 자리에 재고를 채워 넣던가, 외상대를 넣던가, 이렇게 했었잖아?

최병선 : 응, 응.

조기철 : 그 분개가 다 있잖아? 그 전표가!

최병선 : 응, 응.

조기철 : 어.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빼갔다고, 뭐 그렇게, 그분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. 근데 그거는 이제, 숫자들



은 다 있으니까. 백 데이터들은.

최병선 : 응, 응.

조기철 : 응.

최병선 : 아유, 뭐, 어려운, 아유! 아주 어려운 결정인데? (웃음)

조기철 : (웃음) 자! 그러면 1차적으로,

최병선 : 이걸 물어볼까? 회사 회계 쪽에?

조기철 : 어, 어. 그러니까, 어. 니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았고, 나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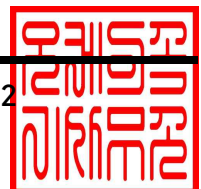
최병선 : 응.

조기철 :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, ‘그분이랑 같이 뭐 의논해 볼까?’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, 어쨌든 뭐 주체는 너니까 니가 이제 판단을 하라고 했던 건데, 그 말속에는 이제 그분이랑,

최병선 : 내가 명절 지나고. 어차피 우리 아버지 회사 회계사니까 내가 명절 지나고. 너하고 같이 한번 뭐 잠깐 보든가? 이런 이슈들이 한두 개, 어제 거 하나 있고 오늘 거 하나 있잖아?

조기철 : 응, 응.

최병선 : 그 이슈들을,



조기철 : 보니까는 지금, 이제, 그, 과거 거 다시 해보니까는 김성재?

최병선 : 응, 응.

조기철 : 김성재도 이게 1억5천이 넘어왔더라고.

최병선 : 응.

조기철 : 그러니까 이런 거, 거래처 원장을 달라고 했거든, 지금.

최병선 : 응, 응.

조기철 : 그럼 이걸 주면은 반드시, ‘이거 뭐냐고?’ 또 물어볼 거야.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약서 다 만들어 놔야 되고, 지금.

최병선 : 계약서는 뭐 있지. 그래서,

조기철 : 아, 계약서는 있어? 응. 하여튼 있으면 됐어, 있으면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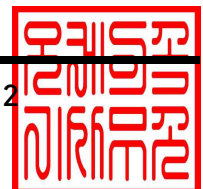
최병선 : 으응.

조기철 : 뭐 우리한테도...

최병선 : 그걸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이지, 그게?

조기철 : 그렇지. 근데 니가 받아 갔다고 그러던데?

최병선 : 그 이 과장한테 한번, 응, 응.



조기철 : 응.

최병선 : 아, 그러니까 내가 개인으로 받아서,

조기철 : 그래. 그랬다고 그러대?

최병선 : 내가 회사에 넣었고,

조기철 : 응.

최병선 : 회사에서 빼준 거거든. 신보에서. 그래서 내가 신보, 아, 기보
받자마자 그게 이제 내가 바로 빼줬어. 아무 생각 없이.
1억5천을 빼줬다가. 4년 전, 5년 전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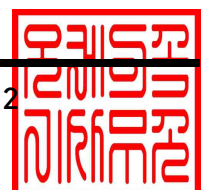
조기철 : 응.

최병선 : 그게 이제 기보에서 나와가지고, 그, 윤리경영 위반으로 해가
지고, 내가 연대보증 들어간 거라고.

조기철 : 아아! 맞다, 맞다! 맞아, 맞아! 기억이 난다. 아아!

최병선 : 어. 그래서, ‘이거 값은 거다. 부채 상황이다.’ 그렇게 해서,
그때 계약서랑 뭐 이런 거 해서 내가 증빙을 했는데, 어쨌든
그렇게 된 거지. 그때 당시에.

조기철 : 응.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있어야 되고.
그때 회계사님께서, 뭐 데이터 다 날리고 없다고 하라고, 그랬
잖아?



최병선 : 응, 응.

조기철 :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곤란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.

최병선 : 응, 응. 오케이.

조기철 : 그러니까 내 의견은.

최병선 : 그래. 안 날렸어.

조기철 : 응, 응.

최병선 : 그러면, 기철아! 이런 거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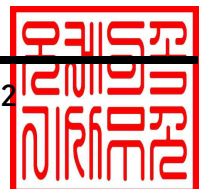
조기철 : 응, 응.

최병선 : 어제 그거, 이거, 나 어제 것도 정확히 내가 컨펌을 못 받았거든요. 내가 내 동생 통해서 지금 문의해서 그러는데, 아버지 얘기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한번 뭐, 만나러 한번 잠깐 가서 한번 상담 받아보고, 뭐 용돈 좀 내가 드리고 오면 될 것 같은데?

조기철 : 응, 응. 오케이, 오케이.

최병선 : 아버지가 그랬어. 그러니까 뭐, ‘그 양반을 아예 시킬 거냐? 전답을? 아니면 그냥 니가 하다가 중간에 뭐 어드바이스를 받을래?’ 그랬거든요.

조기철 : 응, 응.



최병선 : 그래서, 그쪽에서도 뭐라면, ‘한 2주 받아보고, 그러면 방향이 나온다. 애네가 뭘 해서 뺑 뜯어가려고 그러는지.’

조기철 : 그렇지. 응, 응. 맞아, 맞아.

최병선 : 그러면 그때 자기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랬었거든.

조기철 : 응, 응.

최병선 : 응. 근데 이걸 사전 예방 차원에서 뭐 명절 끝나고 같이 한번 보자, 뭐. 화요일쯤이나 해서. 그 대신 이걸 정리를 좀 해서 같이 만나자고. 내가 서울로 아버지랑 뭐 나오라 그러든가.

조기철 : 응, 응.

최병선 : 나 청담 여기 사무실이 있으니까 청담 쪽에서 같이 만나든가. 그럼 될 것 같은데? 그렇게 하자! 뭐 내가 결정할 게 아닌 것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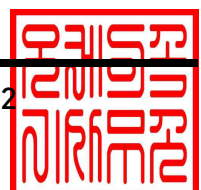
조기철 : 어, 어.

최병선 : 그래서 그 양반도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뭐, 2주 조사를 받으면서 뭐가 있으면,

조기철 : 그렇지. 맞아. 응, 응.

최병선 : 그 양반이 저것도 이렇게 해라, 저렇게 해라, 할 것 같은데?

조기철 : 응, 응. 다,



최병선 : 응, 과정 공유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?

조기철 : 응, 응. 맞아, 맞아, 맞아. 그분 도움을 받을 거면.

최병선 : 응, 응. 그렇게 하자, 그러면?

조기철 : 응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

최병선 : 그럼 일단 두 가지 이슈! 어제 이거랑 오늘 거!

조기철 : 어, 어.

최병선 : 뭐 더 있으면 얘기해 주고.

조기철 : 응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

최병선 : 내가 13일 화요일 정도 한번 잡아볼게. 얘기해서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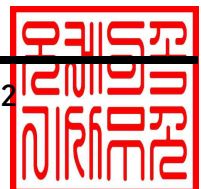
조기철 : 아, 잠깐만! 13일 화요일!

최병선 : 응, 응.

조기철 : 13일, 아아, 시간을, 아휴, 내가,

최병선 : 그럼 그다음 날?

조기철 : 아니, 아니. 그게, 다 마찬가지로인데, 잠깐만.
그분이, 그분이 어디 계시지?



최병선 : 남양주에.

조기철 : 남양주?

최병선 : 응, 응.

조기철 : 아아! 남양주!

최병선 : 아버지랑 같이 나오라고 그러던가, 뭐 내가 가든가, 우리가 가든가 그러지.

조기철 : 그러면 그분한테 어려울 수도 있는데, 그, 12일날, 월요일날, 연휴 마지막 날인데, 그날 뭐 낮에나 이렇게 되면 어떨까?

최병선 : 아유, 안 볼 것 같은데? (웃음) 안 보지 않을까?

조기철 : 아, 그렇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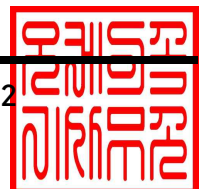
최병선 : 그 양반이 뭐 우리 아버지 말로는 청 출신인데,

조기철 : 그래. 그렇다며?

최병선 : 뭐 위에 사람들 거 싹 입 막는 조건으로 본인이 빵을 갔다 왔다 그랬어.

조기철 : (놀람) 엄청나신 분이네!

최병선 : 그래서, 그래서 아직 그 있잖아? 현직에, 청에?



조기철 : 어, 어.

최병선 : 자기 선후배들이 있을 거 아니야? 자기가 책임지고 갔다 왔는데.

조기철 : 그래.

최병선 : 그리고 이제 옷 벗고 나왔다 그랬거든.

조기철 : 엄청나신 분이네!

최병선 : 그래서 이 사람이 어쨌든 영향력이 있지. 입 벌리면 또 거시기 하니까. 현직들은. 뭐 그런 사이라고 그러더라고.

조기철 : 아아! 아버님이 진짜 대단하시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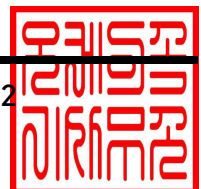
최병선 : 어차피 주류 쪽이니까. 소비세 쪽이니까.

조기철 : 아니, 그래도 아버님이, 그 뭐라고 그러지, 소위 말하는 인맥 관리를 잘하시네.

최병선 : 그래서 그 양반 하나! 이제 그 양반이 아버지 회계사고, 또 한 명은 전전 남양주 세무서장 했던 사람이고.

조기철 : 그래.

최병선 : 그 사람이 지금 남양주 세무서장이랑은 아는데, 뭐 1팀, 2팀은 그래도 영향력이 또 있나 봐. 3팀은 3명 있어가지고, 3팀은 누군지도 모른다고.



조기철 : 아아!

최병선 : 그래서 그 양반은, 그 남양주 세무서장 했던 분은 뭐냐 하면, 그 양반이 워딩이 딱 이거야. 1~2주 받아보시고, 그리고 이렇게 해라고. 우리 아버지 회계사 청 출신은, '나한테 다 선임해라, 차라리.'

조기철 : 아아!

최병선 : 그거였어, 시작도. 근데 우리 아버지야 뭐, 거긴 돈 안 주니 얼마 달랄지 모르고 뭐 하는데, 그 양반은 공격적으로, '회장님! 제가 다 할게요.' 이런 거고. 완전 성향이 둘이 달라.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 세무서장 출신, 남양주 세무서장 출신, 그 사람 말이 맞다는 거지. 논리적으로.

조기철 : 아아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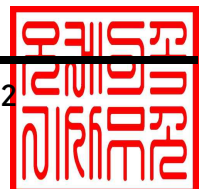
최병선 : 어. 오케이?

조기철 : 그래. 그런 것 같아.

최병선 : 그럼 뭐 날짜만 좀 한번 정해줘. 15일 전후로 한번 뭐 잠깐이라도 시간 내보지, 뭐.

조기철 : 어, 어. 그래.

최병선 : 1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, 뭐. 그래서 청 출신을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아. 그래서 니가 얘기한 대로 이름을 거기다가 좀 써 달라고 하고, 내가 얼마라도 드리고, 그게 나올 것 같은데?



조기철 : 응응. 그래. 알았어. 일단은 내가 다시, 날짜에 대해서는 다시 내가, 저기, 회신해 줄게.

최병선 : 응. 하긴, 그걸 미리 줘야 되는 거잖아? 그 원장도? 15일 전에?

조기철 : 그렇지.

최병선 : 그래.

조기철 : 혹시 그분 내일 만날 수는 있을까, 그러면?

최병선 : 내일?

조기철 : 어.

최병선 : 그걸 내가 그럼 여쭙볼게, 한번. 내일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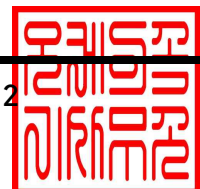
조기철 : 어, 어. 내일!

최병선 : 내일이,

조기철 : 내일. 1차적으로는 우리 지금 있는 서류들은, 드려야 되는 서류들은 거의 다 스캐닝은 다 했거든.

최병선 : 응. 오케이, 오케이. 내가 그거 여쭙볼게.

조기철 : 오케이, 오케이.



최병선 : 시간 약속은.

조기철 : 그럼 니가 나한테 피드백 좀 줘.

최병선 : 응.

조기철 : 응, 응. 땡큐.

- 끝 -

열람용

